

## **민주당 중앙선대위 공명선거본부, AI윤석열로 허위사실유포한 박영일 국힘 남해군수 후보자 고발**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공명선거본부(본부장 김희재 의원)는 31일 박영일 국민의힘 남해군수 후보자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박영일 국민의힘 남해군수 후보자가 AI윤석열을 활용해 윤석열 대통령이 박 후보를 지지하고 있으며, 남해군을 위한 공약을 추진하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에서다.

박 후보가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유포한 AI윤석열 영상에는 AI윤석열이 “남해안 신문화관광벨트 구축”, “남해의 문화적 특성과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국립 문화관광 SOC 유치 추진” 등의 말을 하는동안 ‘박영일 남해군수와 함께합니다!’라는 자막이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다.

동영상을 보면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 박영일 후보를 지지하고 있으며, 남해군을 위하여 위 약속들을 지킬 것처럼 보이게 하고 있다는 것이 민주당 측의 설명이다.

김희재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박영일 후보 지지를 인정한다면 선거 중립 의무 위반인데, 이를 인정하겠느냐”라며 “결국 박영일 후보가 AI윤석열을 활용해 윤석열 대통령이 박 후보를 지지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말했다.

<별첨 : 관련사진 캡처>

